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8 Number 02 02 2020

창조과학 강사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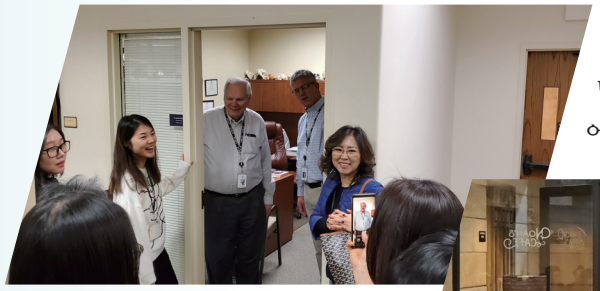
지난 1월 3~6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창조과학선교회 주관 창조과학 강사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는 강승구 박사(이론 물리화학), 고여호수아(지질학 석사), 김낙경 박사(식품공학), 김무현 박사(해양/토목공학), 김선욱 박사(화공학), 김성철 박사(물리학/생리학), 오선호 박사(Biomedical Engineering), 이동용 박사(항공우주공학), 이재만 선교사(지질학, 과학교육학, 구약학 석사), 이충현(DMD, 치과의사), 조희천 박사(지구물리학), 최백성 박사(언어학), 하우태 박사(수의학), 한예성(전자공학), Bill Hoesch(지질학 석사) (가나다 순) 등 강사와 가족, 그리고 번역 담당 서은주, 행정간사 이현지를 포함해서 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일곱 번의 주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재만(사회적 진화론), 한예성(은하의 공간 분포), 최백성(언어학적 에너지 이론의 도입), 이충현(왜 루시가 당신의 할머니의 할머니가 될 수 없는가?), Bill Hoesch(격변적 모델, 세인트 헬렌산), 조희천(격변적 판

구조론), 오선호(동성애에 관하여), 고여호수아(격변적 지형학) 등의 세미나가 순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세미나 주제의 다양성과 깊이에 대하여는 지난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자체 평가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워크숍은 세계에서 가장 큰 창조과학단체인 AIG(Answers In Genesis)의 협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AIG의 초대를 통해 이틀에 걸쳐 Ark Encounter(방주와의 만남)와 창조박물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첫째 날 오전에는 Ark Encounter를 방문하였는데, 내부는 실제 방주의 모양과 박물관 형식으로 디자인되었으며, 공간은 성경 역사와 성경에 관한 궁금증을 답변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낭비없이 전시된 모형들 하나하나가 보는 이로 하여금 놀라움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Ark Encounter는 성경에 기록된 실물 크기로 제작된 방주 모형입니다. 개관 후 3년 동안 매년 백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가고 있어서, 미국 내 어느 곳보다 미국교회가 방문하기를 희망하는 장소로 손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AiG 강사인 David Menton 박사의 사무실 앞에서

천문학에 대하여 Q&A 시간을 갖고 있는 Faulkner 박사

오후에는 파크너 박사(Danny Faulkner, 천문학)의 강의를 듣고, 강의 후에 방주 안에 탑승하는 동물들을 가까이 보고 만질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파크너 박사는 늦은 밤에 특별히 저희들을 초청하여 여러 대의 천체망원경으로 달과 별들, 별자리 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이때 천문학에 대하여 한 시간 동안 Q&A 시간을 가진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AIG 창조박물관을 견학하였는데, 월요일은 원래 오픈하지 않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만을 위해 열어준 것은 특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박물관 견학은 오전에 AIG의 CEO인 켄 햄(Ken Ham)의 접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켄 햄의 환영 인사와 Q&A 시간을 가졌으며 진화론으로 인해 피폐해진 이 시대의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사회에 AIG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역을 진행하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세대와 접촉하고 전하기 위해서 전달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개선하고 노력한다'고 말하며, 그 결과 미국 내 1만여 교회에서 창조과학 주일 공과를 사용하고 있으며, 방문객 전체 인원 중 30-35%에 달하는 불신자들도 관람 후 많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귀중하고 효과적인 전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창조박물관을 실제로 둘러보았는데, 수년 전 처음 개관했을 때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4D 영상이나, 궁금증을 답변하는 방식에서 많은 부분이 이 시대에 맞추어 제작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창조와 진화'의 과학적 비교 등 Ark Encounter와 차별화된 진행 방식이 돋보였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인테리어와 방의 구조를 가진 공간에서 교실 분위기의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고대 역사를 통한 성경의 기록을 보여주는 방들은 각 시대 (즉, 이집트, 바빌론, 예루살렘 등)와 나라에서 사용하던 벽화와 집기 등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섬세함을 보여주어 방문객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오후에는 AIG의 리더들과 직원들이 일하는 사무실과 작업실들을 구석구석 견학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사실, 뉴스레터 제작실, 방송실, 영상 제작실, 그래픽팀, 홍보팀 등 큰 규모와 첨단의 장비뿐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직접 보는 것은 사역자들로써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진화론으로 가득 찬 시대에 창조과학 사역의 최전선에 있는 AIG의 사역을 볼 수 있는 것이 큰 의미가 있었음을 공감했습니다. 또한 AIG의 따뜻한 접대와 안내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창조박물과 견학 장면

AIG 사역에 관하여 전하고 있는 켄 햄

이번 워크숍은 촘촘히 진행된 세미나와 AIG 방문 등 아주 타이트하게 진행되었지만, 강사와 가족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간증했습니다. 워크숍은 후원자들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창조과학 강사 워크숍

지난 1월 3~6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창조과학선교회 주관 창조과학 강사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는 강승구 박사(이론 물리화학), 고여호수아(지질학 석사), 김낙경 박사(식품공학), 김무현 박사(해양/토목공학), 김선욱 박사(화공학), 김성철 박사(물리학/생리학), 오선호 박사(Biomedical Engineering), 이동용 박사(항공우주공학), 이재만 선교사(지질학, 과학교육학 구약학), 이충현(DMD, 치과의사), 조희천 박사(지구물리학), 최백성 박사(언어학), 하우태 박사(수의학), 한예성(전자공학), Bill Hoesch(지질학 석사) (가나다 순) 등 강사와 가족, 그리고 번역 담당 서은주, 행정간사 이현지를 포함해서 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일곱 번의 주제 세미가 있었습니다. 이재만(사회적 진화론), 한예성(은하의 공간 분포), 최백성(언어학적 에너지 이론의 도입), 이충현(왜 루시가 당신의 할머니의 할머니가 될 수 없는가?), Bill Hoesch(격변적 모델, 세인트 헬렌산) 조희천(격변적 판 구조론), 오선호(동성애에 관하여), 고여호수아(격변적 지형학) 등의 세미나가 순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세미나의 주제의 다양성과 깊이에 대하여 지난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자체 평가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워크숍은 세계에서 가장 큰 창조과학단체인 AIG(Answers In Genesis)의 협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AIG의 초대를 통해 이틀 동안 Ark Encounter와 창조박물관을 방문하였습니다.

Ark Encounter는 성경에 기록된 실물 크기로 제작된 방주 모형입니다. 지난 3년간 매년 백만 명 이상 참가하는 기록을 보였습니다. 첫째 날 오전에는 Ark Encounter를 방문하였는데, 내부는 실제 방주의 모양과 박물관 형식으로 디자인되었으며, 공간은

유학생 탐사

유학생 탐사

성경 역사와 성경에 관한 궁금증을 답변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낭비없이 전시된 모형들 하나하나가 보는 이로 하여금 놀라움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오후에는 파크너 박사(Danny Faulkner, 천문학)의 강의와 동물원을 견학했습니다. 파크너 박사는 늦은 밤에 특별히 저희들을 초청하여 천체망원경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이때 천문학에 대하여 한 시간 동안 Q&A 시간을 가진 것도 의미 있었습니다. 파크너 박사의 강의 후에 방주 안에 탑승하는 동물들을 가까이 보고 만질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둘째 날에는 AIG 창조박물관을 견학하였는데, 월요일은 오픈하지 않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만을 위해 열어준 것은 특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견학은 AIG의 CEO인 켄 햄(Ken Ham)의 접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켄 햄의 환영 인사와 Q&A 시간을 가졌으며 진화론으로 인해 피폐해진 이 시대에 AIG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역을 진행하는 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세대와 접촉하고 전하기 위해서 전달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개선하고 노력한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어서 창조박물관을 실제로 둘러보았는데, 수년 전 처음 개관했을 때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4D 영상이나, 궁금증을 답변하는 방식에서 많은 부분이 이 시대에 맞추어 제작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창조와 진화'의 과학적 비교 등 Ark Encounter와 차별화된 진행 방식이 돋보였습니다.

오후에는 AIG가 사역하는 장면을 직접 견학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사실, 뉴스레터 제작실, 방송실, 영상 제작실, 그래픽팀, 홍보팀 등 큰 규모와 첨단의 장비뿐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직접 보는 것은 사역자들로써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진화론으로 가득 찬 시대에 창조과학 사역의 최전선에 있는 AIG의 사역을 볼 수 있는 것이 큰 의미가 있었음을 공감했습니다. 또한 AIG의 따뜻한 접대와 안내에 감사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촘촘히 진행된 세미나와 AIG 방문 등 아주 타이트하게 진행되었지만, 강사와 가족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간증했습니다. 워크숍은 후원자들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1차 유학생 창조과학탐사

지난 2019년 12월 30일- 2020년 1월 2일 나흘간 21차 유학생 창조과학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랜드캐니언, 세도나, Sunset 분화구, 운석구 등을 경유하며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2019년과 2020년을 넘으며 진행되었으며, 그랜드캐니언을 방문하는 날은 1월 1일이었습니다(지금까지 449차의 창탐이 진행되었으며, 1월 1일 그랜드캐니언 방문은 처음입니다). 이번에도 50명이 참석하여 버스 한 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뉴저지, 시애틀(WA), 오클라호마, 인디애나, 텍사스, 보스턴, 산호세, 일리노이, LA 등 미국 각지에서 다양한 전공자의 유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유학생 창탐이 그렇듯이 이번에도 수많은 질문과 답변들이 오갔습니다. 단지 눈으로 볼 뿐 아니라, 질문과 답변을 통해 성경에 대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날 버스에서의 간증들은 한결같이 성경에 대한 확신과 함께 앞으로 자신들이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 것인 지를 고민하는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다음 유학생 창탐 때 친구들에게 항공권을 사주며 보내겠다고 하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이번 유창탐을 준비하며 어떤 유학생 교회에서는 김밥을 판매해서 항공권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21차 유학생 창탐도 한 후원자에 의해 $50이라는 저렴한 참가비로 진행되었습니다. 후원해주신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과 세계관(5) 계몽주의
Enlightenment

교회가 타락했을 때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 타락했음을 알고 이에 반응한다. 중세 교회가 타락했을 때 교회 안에서의 변화는 지난 호에 다루었던 종교개혁이다. 한편 교회 밖에서 일어난 움직임이 이번에 다루게 될 '계몽주의'이다. 종교개혁은 교회 안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몸부림인 반면, 계몽주의는 타락한 교회를 떠나 지성으로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탈 교회적 분위기(separation from church)에서 나왔다. 일반적으로 종교개혁과 계몽주의가 시작할 때부터 근대(modern age)라고 부른다.

계몽주의는 '17~18세기 유럽에서 등장한 광범위한 사회 진보적 지적 운동'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이는 계몽주의 쪽에서 바라보며 정의한 것이지, 성경적으로 보자면 교회와 성경을 배제한 인간의 지성을 통해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움직임이다. 종교개혁은 중세 교회가 성경에서 멀어지는 상황 속에서 다시 진리로 돌아가려는 몸부림인 반면, 계몽주의는 교회가 타락하자 유럽이 복음을 받기 이전의 그릇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자신들이 이를 인지하든 못하든) 자연적 결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쪽에서 보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했던 종교개혁이 계몽주의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다.

계몽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성을 신뢰했으며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이라는 진보적인 생각을 추구했다. 이들은 그 이성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이성을 최고의 권위로 놓았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성을 통해 바른 사회가 될 것으로 여겼다. 실제로 이성을 신뢰하거나 진보적인 생각을 갖는 것 자체를 그릇된 자세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인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치이며,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도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을 빼고 이성으로만 찾고자 한 것이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 없이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초기 계몽주의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성을 추구하고자 했었다.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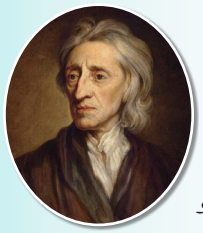
시간이 감에 따라 그들 마음에서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고, 자신들의 이성만을 신뢰하는 쪽으로 이동했다. 이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다. 틈새가 들어왔을 경우 그 틈새를 타고 들어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대하 20:32, 33)와 같이 산당을 남겨 놓았을 때, 결국 그의 후손들은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대하 28:25) 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

계몽주의자들도 결국에는 기독교를 타종교나 미신과 비슷하게 여겼으며, 인간이 바르게 진보하는데 있어서 성경이 걸림돌이 된다고 여겼다. 오늘날 우리가 보듯이 교회에서 진화론을 함께 받아들이는 타협이론을 수용했을 때, 결국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처럼 되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처음 계몽주의는 영국에서 기독교적 틀 안에서 시작되었으나, 프랑스로 넘어갔을 때는 이미 무신론으로 변했으며 독일로 파급되어 인본주의적 철학으로 발달하게 된다. 드디어 철학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아래 계몽주의자들과 주요 사건을 통해서 그 사고의 변천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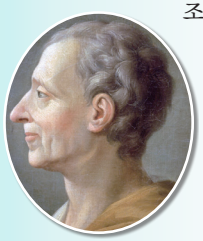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 영국): "지식이 힘이다"라고 말한 경험론(empiricism: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강조하는 이론)의 시조라 불린다. 그는 "우리 앞에 두 책이 있다. 하나는 성경이며 이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두 번째 책은 피조물인데 그의 권능을 나타낸다"의 고백과 같이 그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경험론을 극단적으로 적용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뺀 경험만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었다.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 프랑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방법서설, 1637) 그의 이 유명한 문장은 계몽주의의 원리를 확립한 표현으로 평가 받는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사람도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한다. 이 그릇된 한 문장은 계몽주의자들이 자신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흘러가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그는 스스로 유신론자라고 고백했지만 "우주는 물질로 구성된 거대한 기계이며 인간의 정신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다"고 여기는 자연주의적 자세를 추구했다. 즉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고 믿는 이신론적(deistic) 신앙을 갖게 되었다.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 영국): 가장 영향력 있는 계몽주의자였으며 인식론의 창시자로 불린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백지와 같은 것으로… 인간에게 지식과 추리를 주는 것은 경험뿐이다" "계시의 개념을 부정하지 않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계시를 판단해야 한다". 그 역시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했으나 우리의 삶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이신론자였다. 헌정민주정치와 자연권리를 주장함으로 영국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웠고, 미국 독립선언문(1776년)의 기초를 세운 제퍼슨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명예혁명(Glorious Revolution, 1688 영국):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명예롭게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명명되었다. 의회 민주주의를 출발시킨 시발점으로 이후부터 왕조는 의회를 무시하는 권력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 혁명(1789년)에도 영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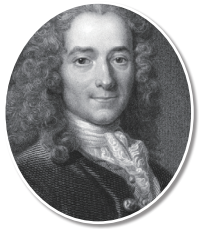
몽테스키외 남작(Charles Montesquieu, 1689–1755, 프랑스): 권력분립에 의한 법치주의를 제창했으며, 최초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으로 권력을 나누는

처음 계몽주의는 영국에서 기독교적 틀 안에서 시작되었으나,

프랑스로 넘어갔을 때는 이미 무신론으로 변했으며 독일로 파급되어

인본주의적 철학으로 발달하게 된다. 드디어 철학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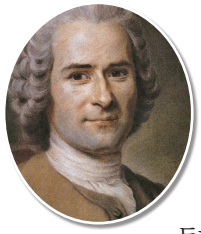
삼권분립설, 입헌 군주 제도론 등을 전개했다.



볼테르(Voltaire, 1694–1778, 프랑스): 관용을 주장하는 상징적 인물로써 기독교에 맞서서 평생 투쟁하는 등 교회와 적대적 자세를 취했다. 그는 관용 정신 없이는 인류의 발전도 문명의 진보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관용을 강조했다.

라메트리(Julien La Mettrie, 1709–1751, 프랑스): 의사, 철학자, 첫 유물론 작가이다. 사물 속에 내재하는 운동성만을 인정하며, "인간은 동물보다 높은 존재일 뿐이며, 일종의 기계일 뿐"이라는 자연주의적이며 진화론적 이론을 폈다. "신의 존재란 실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이론적 진리에 불과"라는 무신론적 자세를 취하며 신학 자체를 부정했다.

흄(David Hume, 1711–1776, 스코틀랜드): 경험에 의한 것만을 바탕으로 철학을 펼쳤으며 결국에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결론 하에 회의론자로 변했으며, 결국 무신론자가 되었다.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 프랑스): 인간 평등 문제를 실천하도록 하는 최초의 사람으로 평가되며 국가는 다수결에 의해 자유와 평등을 확인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사회의 쇠사슬에 묶여 있다" "자연은 인간을 선량, 자유, 행복하게 만들었지만 사회가 인간을 사악, 노예, 불행으로 몰아넣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귀족 부인과 사귀었지만 오랫동안 동거했던 세탁부 하녀와 결혼했다. 다섯 명의 아들을 모두 고아원에 보내는 등의 자신이 주장했던 자유와 평등이 어떤 의미인지 의아하게 여기게 하는 삶을 살았다.

프랑스 혁명(1789년 5월 5일~1799년 11월 9일): 시민과 농민의 개입으로 폭력적 혁

명을 통해 이전 봉건주의 체제를 전복시킨 사건이다. 미국 전쟁 지원 등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재정적 곤란을 겪고 있을 당시, 단지 2% 밖에 안되는 귀족 계급과 성직자들은 여전히 봉건적 특권을 누리고 있었을 때 일어났다. 혁명가들은 루소와 볼테르 등의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기존의 모순된 사회제도를 비난하고 합리적인 사회제도의 출현을 주장했다. 그 결과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남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보통 선거가 제도화되는 프랑스 제1공화국이 수립되었다(1792년).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칸트(Immanuel Kant, 1724–1804, 독일): 근대 계몽주의를 정점에 올려놓은 독일 관념철학을 확립한 철학자로 평가된 18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였다. 〈순수이성비판〉 (1781년)은 철학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저서 중 하나로 꼽힌다. 그는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식론에 바탕을 두고 이성으로 이성을 갖고 있는 자신을 비판하는 철학을 펼쳤다. 그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도덕을 추구했으며, 인간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며 그에 합당한 존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 독일): 작가이며 철학자인 그는 루터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결국 "나는 반기독교인(anti–Christian)이나 말뿐인 불기독교인(un–Christian)도 아니며, 비기독교인(non–Christian)이다"라고 하며 성경에서 마음이 완전히 떠난 자신을 인정했다.

이와 같이 계몽주의자들은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성경을 배제하는 우를 범하였다. 실제로 계몽주의가 자유, 평등 등 근대 인류사에 중요한 업적을 이룬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성을 억압했던 중세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사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인위적인 시도는 결코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이룰 수 없었다. 19세기로 들어가며 진화론을 탄생시켰고, 20세기 초는 세계대전과 이데올로기로 인해 어려운 세상으로 이어졌으며, 도덕적으로는 더욱 타락했다(이에 대하여는 2018–19년 Creation Truth에서 연재된 '사회진화론'을 참고 바람). 이런 인위적인 노력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추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 나열된 철학자들을 보듯이 계몽주의의 시작으로 결국 철학 시대에 도래했다. 철학은 '세계와 인간의 삶에 대한 근본 원리 즉 인생관, 세계관 등을 탐구하는 학문'(Wiki)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이 학문에서 전제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없이'라는 점이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당시 고대 철학자들과 맞섰다(행 17:18). 바울은 사람에게서 나온 이 철학을 아주 경계할 것을 교회에게 당부한다. 그리고 그 철학을 헛된 속임수와 동일시하였으며 사람에게서 나온 초등학문으로 취급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philosophy)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골 2:6–8).

철학이 계몽주의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바벨탑 이후에 인류가 흩어지며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어느 나라나 철학이 등장했다.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일하다. 모두 자신들의 전통과 사고로 만든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세 시대 이전의 유럽도 마찬가지로 당시 고대 철학이 있었다. 이때도 하나님이 빠진 철학 시대였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렵게 복음의 씨가 심어지고 숭고한 크리스천들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는 열매가 맺게 되었는데, 교회가 타락하자 초등학문인 철학 시대로 다시 들어선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교회가 아닌 철학자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철학자들의 등장은 우리 역사 가운데 결코 새롭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가 성경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등장했던 계몽주의는 전적으로 교회에게 책임이 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을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다른 곳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진리는 오직 성경에 있으며, 이를 맡은 곳이 교회뿐인데 교회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이다.

위의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언급을 보면서 그 안에 내포된 인본주의적이며 진화론적 사고를 엿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들은 이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제함으로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진화론의 기초인 '자연주의(naturalism)'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이 자연주의에 대하여는 다음 편에 다루기로 할 것이다.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구약학

● *인물이미지 출처 : 위키백과(Wikipedia)*

창조과학탐사

20차 유학생 탐사
1/2 ~ 1/5, 2019

이 기사는 창조과학탐사에 참여한 자들에 의한 간증 소감문으로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홈페이지 www.hisark.com 의 ACT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창조과학탐사를 통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배웠고 예수님이 창조자이시자 구원자이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저의 신앙과 믿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느끼고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계심을 다시 믿을 수 있게 된 이 탐사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후원해주신 분과 이재만 선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뉴저지갈보리감리교회/정승준〉

단순히 4년동안 미국에서 대학생활을 하며 제대로 여행해보지 못했다는 마음에 아쉬워서 신청한 창조과학탐사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성경으로 2019년 새해를 시작하고 싶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 기회가 되어 너무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고 갑니다. 선교지에서 태어난 MK로서 이재만 선교사님의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선교사님이 정말 필요한 곳에서 사역하신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섬겨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그랜드래피즈한인은혜교회/조은솔〉

2015년 창조과학탐사 이후 두 번째로 다시 왔습니다. 생화학 전공의 대학생이 된 저는 진화론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성경을 온전히 사실로 믿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이 내 노력으로 매사에 감사하려고 하고 찬양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되니 저절로 찬송이 나옵니다.창조과학탐사에서 다시 만난 예수님을 학교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과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뉴저지온누리교회/박세린〉

창조과학을 통해 저의 삶이 방향을 바뀌었습니다. 창조과학이 제게 쉽게 설명해준 성경이 알려준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넘쳐난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탐사가 제게 주체하지 못할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제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본 산 증인으로써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신 후원자분들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 사랑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에버그린선교교회/조현웅〉

유학생 창조과학탐사는 이미 함께 공부하고 있는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난한 유학생 신분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비싼 비용 때문에 선뜻 참석을 주저하게 되는데 유학생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은 너무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후원을 통하여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받은 은혜를 다른 곳에 잘 흘려 보내주는 삶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레이크에비뉴교회/정재훈〉

이번 유학생 창조과학탐사를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기독교 학교를 다닌 내가 대학교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는 생각이 변하였다. 나는 성경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창조과학탐사를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 그분 그대로 알고 믿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DOWN TOWN HOPE/김진형〉

중요한 시기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생각 속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온 진화론의 패러다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얼마나 많은 곳에 진화론이 악 영향을 끼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창조물들과 노아홍수 증거들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하사랑교회/김유종〉

창조과학탐사를 다니며 하루 하루 날이 갈수록 더 감사했습니다. 투어나 여행이 아닌 3박4일에 걸친 귀한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꽤나 큰 범위에 침투해있는 진화론이라는 것, 또한 그 근거 없는 헛된 정보들이 저에게 들어와 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이런 귀한 기회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느낄 수 있는 성경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그 후원하게 된 그 이야기, 그리고 힘쓰시는 많은 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종으로써 열정과 헌신을 그대로 가져가 더 노력하고 주님 의지하고 섬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서영〉

사역일정

2020 ACT Schedule

2/10-17	창조과학탐사 (대구화원교회), 이재만
2/10-14	창조과학탐사 (일산대림교회), 김낙경
2/18-26	창조과학탐사(광주첨단겨자씨교회), 이재만
2/19-22	창조과학탐사(소망장로교회), 김낙경
3/10-12	창조과학탐사(미남침례한인총회), 김낙경
4/3-5	창조과학세미나 (워싱턴온누리교회), 이재만
4/7-14	창조과학탐사 (천안아산제자교회), 이재만
4/19-23	창조과학탐사 (임마누엘교회), 이재만
4/25	창조과학세미나 (샌디에고새소망교회), 이재만
4/27-5/3	창조과학탐사 (기독교미래연구소), 이재만
5/18-22	창조과학탐사 (수지글로리아교회), 이재만
5/25-30	창조과학탐사 (이랑학교),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ACT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